

“마지막 여행의 동행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환자 소개

<개인정보>

- 성명: 이○○(66/M)
- 종교: 무교
- 입원기간: 2015. 03. 31 ~ 2015. 04. 18
- 진단명: 방광암, 수술부위 및 우측골반 재발, 요근 전이 의심

<환자상태>

- 주증상: 통증(수술 부위, 오른쪽 무릎, 전신통증), 숨참, 어지러움, 쇠약감, 변비, 섬망
- 과거력: 고혈압으로 보건소에서 경구약 복용

하다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입원 후 중단

- 현병력: 2013년 11월 본원 비뇨기과에서 방광암 진단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받음. 2014년 9월 수술 부위 통증 호소하여 시행한 CT검사상 방광암 재발(수술부위, 우측골반), 요근 전이 의심 소견 보여,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적 치료를 위해 입원함

진료 부분

<병력>

- 2013. 11. 방광암 진단
- 2013. 11. 근치방광절제술 및 회장도관 시행
- 2013. 12. ~ 2014. 02. 항암치료 실시
- 2014. 03. 항암치료 반응 평가를 위한 CT 촬영에서 암 재발 소견 없음
- 2014. 03. ~ 2014. 05. 항암치료 실시
- 2014. 06. 항암치료 반응 평가를 위한 CT 촬영에서 암 재발 소견 없음
- 2014. 09. 항문 및 회음부 통증 호소, 추적 CT 촬영에서 이전 수술 부위, 오른쪽 골반, 회장도관 부위 재발, 요근 전이 의심 소견 보임, 항암치료 권유 받았으나 시행하지 않음

2014. 09. ~ 2015. 03. 비뇨기과 외래에서 통증, 변비에 대한 보존적 치료 시행

2015. 03. 27. 숨참, 쇠약감 심해져 호스피스 완화의료 외래로 의뢰 됨

2015. 03. 31.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입원하여 통증, 숨참, 변비, 혼돈, 불안 등의 증상 조절

2015. 04. 18.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에서 임종

<주 증상에 따른 진료과정>

통증

(주호소)

- 수술 부위 통증, 오른쪽 무릎 통증, 전신 통증 호소

(치료과정)

- 외래에서 경구 복용하던 약한 마약성 진통제의 효과가 떨어지고 입원 시 통증지수 7점이상으로 통증 조절이 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제로 바꾸어 통증 조절 시작
- 하루에 2~3회 이상의 돌발성 통증을 보여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지속적으로 증량하여 통증지수 3~4점으로 조절
- 변비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마그밀 병용 투여

빈혈

(주호소)

- 숨참, 어지러움, 쇠약감 호소
- 입원 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5.2의 심한 빈혈 소견 보임

(치료과정)

- 말초 삽입형 중심정맥관 시술 후 수혈 고려하

- 였으나, 환자의 전신상태가 저하되고 혼돈 보여 수혈을 시행하지 못함
- 숨찬 증상과 불안 증상을 같이 보여,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미다졸람 병용 투여
- 이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빈혈은 더 나빠지지 않고 비슷한 수치 유지됨

섬망

(주호소)

-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함
- 폭력적인 언행, 불면증, 혼돈 보임
- 불안, 우울 증상이 동반해서 나타남

(치료과정)

- 섬망, 불면, 불안, 우울 증상 조절을 위해 미다졸람과 함께 할로페리돌 투여
-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상담

간호 부분

<간호진단 1. 비효율적 가족 기능>

환자상태 사정

- ECOG: 3점
- mental: alert
- 식사: 구강섭취 제한 없으나, 입맛 없다면 물 종류로 소량씩 드심. 1~2회/주 영양제 투여함.
- 환자특성: “안 먹어... 내가 죽을려나... 힘이 없어”
 - ① 꼼꼼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과거 음주를 즐기며, 음주 후 부인과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기중심적 모습 보임.
 - ② 본인 상태 부정하는 단계로 양가감정 보임. “아프니까 빨리 죽고 싶다” “집에 가자”
 - ③ 딸에 대한 의지가 크며, 부인을 무시하는 행동 함.
- 부인특성: “불쌍하지 뭐 ~” “자기가 얼마 남

지 않았다는 걸 알면 갑자기 어떻게 될까 무서워”

- ① 과거 시어머니를 3년간 간병 후 바로 남편의 간병을 2년째 하고 있어, 간병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으나, 신체적으로 소진 되어 있음.
- ② 환자가 던진 물건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치료 받은 경험 있어, 환자가 화를 내면 겁 먹은 모습으로 회피하는 행동 함.
- ③ 환자에게 병식에 대한 설명 하는 것을 꺼려 하며, 입원 초기 끝까지 환자에게 여명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
- 딸특성: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여기서 기운 좀 차리면 다시 항암 하려구요”
 - ① 어렸을때는 술 마시고 폭행하던 아버지가 무서워 도망다니곤 하였는데, 아버지가 늙어 지금은 자신을 때릴 힘이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며, 불쌍하다고 표현함.

- ②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끝까지 무엇이라도 해 주는 것이 효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③ 부모 모두 자신에게 의지하며, 본인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 부담감을 갖고 있음.

계획 및 수행

- 원예요법을 통해 화분을 만들고(부인) 환자에게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
- 딸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의 방문으로 기도 시간 가짐.
- 부인 및 딸에게 환자 상태에 대한 교육 진행
- 원목 수녀님을 통한 환자와 부인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지속적 면담 실시
- 봉사자를 통한 이발 및 목욕으로 심신의 위안 제공

평가

- 가족과 환자 모두 의료진과 호스피스팀에게 고마움을 표현함.
- 부인: 환자가 화낼 때 너무 무서웠는데,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의료진 및 봉사자가 있어 든든하다고 표현함. 환자에게 화분을 선물하면서 고맙게 받아주어 놀라면서도 기뻐했다고 표현함. 수녀님이 다녀간 후 자신에게 “미안했다”라고 환자가 말했다며 좋아함.
- 딸: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장례절차 등 도움을 받아 힘이 되었다며 고마워 함. “호스피스로 올 때 아버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었었는데 편안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표현함.

<간호진단 2. 통증>

환자상태

- 환자특성: “왜 안 낫는거야?” “또 아파~” “안 아프게 할 수 없는거야?” 자다 일어나면, 계속 아프다고 함. 보호자에게 신경질내고 심한 말을 자주 함. 요루관리시 누르면 아프다 함.
- NRS: 4~5점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계획 및 수행

- 정규 N-FTD5P(4월 8일) 추가함.
- PRN 딜리드 2mg 정맥주사 함.
- 통증 시 적극적 표현 권유하고 함께 있어주며 정서적 지지함.
- 아로마를 이용한 발마사지로 안위제공 함.

평가

- “주사가 효과가 좋아” 라고 표현함.
- “마사지 받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하며 편한해 함.
- 통증 호소 줄어들며, 수면양 증가함.

사회복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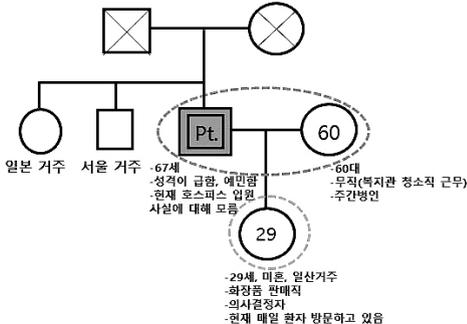
<개인력>

- 성별/나이: M/67
- 보험분류: 건강보험(차상위1종)
- 직업: 무직(前도로포장 업체 근무)

- 결혼: 기혼
- 종교: 무교
- 성격: 꼼꼼하고 깔끔하나 성격이 급함
- 질환에 대한 환자의 인식: 회피, 분노

-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없음
- 과거 음주를 즐겨하였고, 음주 후 부인과 딸에게 폭력을 행사함.
음주 후 물건을 던져 부인의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 하거나, 근무 후 늦게 퇴근하는 부인을 의심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함.
“아프니까 빨리 죽고 싶다.”, “집에 가자.”고 말하는 등 본인이 호스피스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며, 여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
딸이 옆에 없으면 심한 불안감을 보임.

<가계도>



<가족관계>

- 부인: 60대, 주간병원, 무직(복지관 청소직으로 근무하였으나 환자 간병위해 쉬는 중).
작은 음주와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이 암에 걸려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느끼며, 2년 전 부터 남편 간병함.
“자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면 갑자기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요.”라며 남편에게 호스피스 입원 사실 숨김.
경제적인 부분이나 장례계획에 대해서는 모두 딸에게 의지.

- 딸: 29세, 미혼, 일산거주, 의사결정자, 화장품 판매직, 근무 후 매일 환자 방문하고 있음.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올해 예정이던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룸. 환자에게 수혈을 하려고 하는 등 병식이 없음.

<경제력>

- 주소득원: 부인(월 70만원),
 자녀(20~30만원 용돈)
- 주거: 전세
- 사보험: 무

<퇴원 후 계획>

- 임종계획: 화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가족상의는 안되어 있는 상태임.
- 생계: 딸은 출가할 예정이며 부인은 복지관 청소직 복직할 계획임.

사정

- 환자 호스피스 입원 사실을 모르고 있음.
- 부인과 자녀 병식 없으며, 환자 상태 저하됨에 따라 높은 불안감 보임.
- 임종계획 없음.
- 부인 2년 전부터 환자 간병하여 신체적, 심리적 소진 우려.

개입

- 환자 상태와 예후에 대해 이해하도록 주치의에게 면담 요청, 가족 상의 후, 주치의 통해 환자 직면 할 수 있도록 함.
- 환자 형제들과 임종계획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고 화장터 안내.
- 지속적인 면담 시행, 요법 및 가족교육 참여.

원목 부분

2013년 11월 본원 비뇨기과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은 이○○님은 2014년 9월 골반 전이로 통증조절이 되지 않아 보존적 치료위해 호스피스병동으로 입원오신 환자분입니다. 부인의 간병을 받고 계신 환자는 하루 종일 별 말씀이 없으시고 묻는 말에만 겨우 고개만 끄덕이실 뿐, 오히려 부인이 대답하시면서 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인 정보를 알려주신다.

환자는 무교이지만 부인이 노원구 순복음교회의 신도이신지라 혹시 목사님의 방문은 있으셨는지 여쭙어 보았더니 남편은 워낙 교회 다니는 것조차 싫어하고 교회는 절대 다니지 않겠다고 하셔서 교회에서도 방문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셨다. 남편은 젊은 시절 목수일로 교회건축을 담당하기도 했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회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데 수녀님, 신부님 방문은 아무 말도 안하신다며 의아해 하셨다.

며칠 전, 전도사님이 방문하였는데 매 기도 끝마다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라는 권유에 대답도 안하고 뿌루뚱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금방 가버리셨다고 푸념하셨다.

입원 후 한 달이 지나자 일본에서 여동생이 찾아왔는데 이야기 도중 환자가 사지를 떠는 모습이 발견되어 간호사가 상태를 사정하는 사이 진정되기는 하였으나 환자의 얼굴 표정이 심상치 않아 혹시 불안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왜 그런지 불안하다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걱정스러워 하셨다.

부인에게 본인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방광암인지는 알고 있으

나 수술도 하고 항암치료도 했기 때문에 통증만 가라앉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고 하셨다.

나쁜 소식이기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직면에 대해 언급해 보았다. 부인은 “성격이 불같아서 얼마 못산다고 말하면 충격으로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하시며 한숨을 내쉬셨다.

환자는 진단받기 전 도로포장 공사를 하던 환자는 1주일 내내 술을 달고 살았고 고집도 세지만 술주정으로 종종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응급실로 가야했다. 맛벌리로 남편보다 늦게 가면 “어느 놈하고 놀다 왔냐”며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 옆집에서 신세를 진적도 다반사였다. 술이 깨면 미안하다며 술 먹는 것에 대해 이해해 달라는 말에 지금까지 살아오셨단다. 부인뿐만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도 화를 자주 내어 딸도 아버지만 보면 도망치거나 피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부쩍 딸을 찾으며 불안한 모습이 보이고 집에 가자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부인은 집에는 못 간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너무 힘들고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고개를 숙이셨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감정이 너무나 안쓰럽게 여겨졌다.

몸이 불편할 때마다 부인만 보면 짜증을 내는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질환으로 인한 상태 변화를 알고 겪는 것과 모르고 겪었을 때의 불안감, 두려움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다시 한 번 직면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부인과 딸은 이내 동의하고 의사의 설명으로 남은 삶을 의미 있고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의사가 진실을 전하였다.

직면 후 환자는 부인에게 “미안했어요” 하는 말 표현을 하기했지만, 우울과 침묵의 시간이 늘어났고 환자는 의식저하 상태를 보여서 비록 부인은 환자와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갖지는 못했으나 “남편이기에 후회 없는 간병으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요.”라는 표현이 부인에게는 조금은 자유스러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쁜 소식이었지만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불안과 짜증으로 보낼 수도 있었던 짧은 시간 이나마 삶에 대해, 가족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과 호스피스병동이었기에 가능했던 정서적, 심리적, 영적 돌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자원봉사 부분

첫 만남은 환자와 보호자가 복도에서 산책 중 이었는데 마치 부부가 아닌 오누이 같았고, 호스피스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 오신 것처럼 편안해 보이고, 아무 요구나 조건도 없이 호스피스에 몸을 맡기고 따르고 계셨다.

두 번째 만남은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누워있지 못하고 앉아계셨다.

앉아 계시는 것이 편안하신 것 같아 병실을 나왔는데 잠시 후, 큰소리가 나서 가보니 교회 전도사가 방문하여 큰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어 다인실이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환자에게 아멘을 강요를 하는 것이었다. 환자가 묵묵부답하고 있으니 기도하는 중 마는 중 돌아가는 모습이다. 기도에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베에 있는 소변주머니에서 냄새가 심하고 몸에 각질이 떨어져 목욕을 권하니 “나도 목욕을 할 수 있어?”하고 물으셨다.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부인과 함께 목욕을 도와 드렸다. 목욕 후 가쁜한 느낌이셨는지 침울했던 표정이 밝아 지셔서 오히려 내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세 번째 만남은 주무시는 시간이 길어져 환자와의 대화는 힘들었다.

부인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이런저런 이

야기를 하다 보니 부인의 삶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 꼭 안아 주었다. 술주정에 폭력까지 부인은 그 모든 것을 상처로 안고 있으면서도 남편이라는 이유로 견뎌내면서 간병까지 성실하게 하는 모습이었다. 안고 있는 내내 나도 모르게 부인에게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 만남은 임종실에서의 만남이었다.

환자는 호흡도 맥도 아주 희미한 상태였다. 옆에는 부인만 계셨고 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부인이 혼자 계시기에 옆에 함께 하였다. 잔잔한 음악 속에서 부인이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요.” 라고 말씀하시며 힘들어 하고 계셨다. 남겨진 부인을 위로해 드리고 싶은 간절한 생각이 들어 “가족이라고 무조건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환자의 편안한 얼굴을 보니까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잠시 후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듯 딸이 야속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딸이 오기 전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여행을 떠나셨다.